

마음 비취보는 거울...1주일이 편안

독자가 보는 현대불교

5 1994-1999
현대불교 창간 5돌

영등포교도소 박홍렬씨

'나의 수행일기' 읽으며
재소자와 토론·상담



다. 이어 '수행한담'과 함께 '나의 수행일기'에 시선이 머문다.
르스님들의 법어와 인사들의 수행체험담은 박씨의 수행거울도 되지만 재소자를 상담하고 교화하는 훌륭한 교재다.
"불이란 회색 담장 안에 현대불교신문의 눈 밝은 독자가 많다"고 말하고, 현대 불교신문이 사회 전체를 수평적으로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모녀독자 조남인·정인주씨

'수행한담' '길은 묻는...'
스크랩북 만들어 탐독



하고 교훈으로 삼는 답은 곧 독자이기도 하다.
"르스님 법문에는 세상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는 우주법계의 세상이지가 모두 들어 있다"는 이들 모녀는 "신문을 읽는 동안은 숨을 가다듬는 순간이고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시간이다"고 말한다. 4년전까지만해도 성당에 다니던 정씨에게 '수행한담'과 '길은 묻는이에게' 코너는 낯다른 의미를 지닌다. "오랜동안 시련과 번민으로 힘들어 하다가 불교를 통해 평화를 얻게됐던 정씨에게 르스님법문이 그 어떤 위로보다 든든한 용기가 됐던 것.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신문은 추려 모았던 스크랩북은 무엇보다 소중한다." 도필선 기자

현대불교는 독자와 함께 만듭니다

열린마당 항상 열려있어요

종단, 복지, 문화제 및 환경보호 등 매주 교계와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 찬반 양론을 제기하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해인골프장 건설 문제를 집중보도에 해인사 주변의 환경보호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보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려, 현재까지 골프장 건설 무효확인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언·제보 언제나 환영합니다

각종 취재사건과 군대에서의 종교편향 사건, 방송사의 불교예능 등 기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와 사건에 대해 독자들이 문제제점과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제언과 제보를 통해 차질 무관심속에 묻혀버린 사건의 취재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불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서 출발하는 코너입니다.

독자 투고 이렇게 게재합니다

독자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교계 현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기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 자작시, 사진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동참 가능합니다. 원고가 게재된 독자에게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도서출판 여시아문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때에는 멀리 미국에서 보내온 독자의 편지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했고, 매주 법보시로 보내오는 현대불교신문을 감사하게 읽고 있다는 청송교도소 재소자의 편지도 이 난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신행칼럼·동행 성심껏 안내합니다

교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르스님 법회와 경전강좌, 교양대학 수강, 사찰수련회, 신행활동, 교계인사의 활동상황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코너입니다. 신행칼럼을 통해 한 주간의 신행활동을 점검하고 정보를 얻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사찰과 신행단체 등에서 진행되는 행사일정을 빠스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보도해 드립니다.

광고·구독 신청 지금 하세요

현대불교신문의 광고안은 기사 못지 않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찰의 행사나 상품광고, 기타 구인 구직, 생활광고 등을 이용하시면 즉각 그 반응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현대불교신문의 각종 코너에 동참할 독자들은 전화 (02)722-4162~3, 팩스 (02)737-0698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현대불교신문은 인터넷 부가피아를 통해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http://www.buddhapia.com)하고, 독자와 함께 승수는 신문, 2천만 불자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게재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문이나 반론 정정요청도 보다 친절하게 실을 예정입니다.

독자와 함께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신문,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풍요를 주고, 불교정보화세상을 앞당기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질책을 기대합니다.

정리=이은자 기자(ejee@buddhapia.com)

현대 불교에 바란다

비불자도 부담없이 접근토록

향적스님 (강화 보문사 주지)

'현대불교신문'이라는 제호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짐작된다. 기존 신문들에서 보던 종단 정치기사 길에서 벗어나 문화 신행적 접근을 통해 젊은 층까지 흡수하려는 신선한 노력이 엿보이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무질서한 광고개재와 너무 많은 기사는 옥의 티가 될 수 있다. 한눈에 그 신문의 성격과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편집과 기사발굴에 힘을 쏟는 현대불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불교자들이 부담없이 지면을 통해 불교를 접하고, 동참해 보고 싶은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낮은 곳을 지향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지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계 매듭푸는 해답 제시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협회장)

불교전문지는 어느 누구나 '현재 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닥을 잡아주고 더 나아가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 얽힌 불교계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 의식과 여건을 개선하고 정리해 1세기 불교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종교에 비해 지식인들의 참여가 적은 불교계 현실을 함께 반성하면서 현대불교신문이 새 천년의 미래상, 정신세계를 정립하는데 제 몫을 다 할 수 있길 바란다.

쉽고 재미있게 꾸몄으면

양승부 (변호사·제주)

현대불교신문은 종단을 포함한 불교계 소식을 폭넓게 취급해 독자들에게 불교와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열두해 두었으면 한다. 기획기사나 선승들의 칼럼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심을 발의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대불교신문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방세계' '르스님 수행한담' '법공양 페이지' 등이 바로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더 쉽고 재미있게 꾸며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려운곳 시원히 긁도록

이창경 (신구전문대 교수·출판학)

현대불교신문 창간호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시원한 편집과 알찬 기사는 인상적이었다. 그것은 불교지로서 큰 변화이자 독자로서의 기쁨이었다. 5년, 지령 240호를 넘기는 동안 매주 (현대불교)를 받아보지만 처음의 신선한 충격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언론으로서 강한 논조가 필요할 때 서슴없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냉엄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과사현정의 정신으로 구매를 개혁하고, 치우침없는 논평을 통해 불교계를 향도하는 신문을 기대한다. 동시에 향후 정보매체 변화가 젊은 세대 취향에 맞는 불교의 자기공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현대불교신문 불교정보센터 부가피아가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각종행사 미리 챙겨주길

이정경 (주부·대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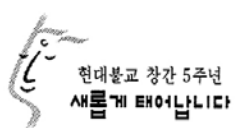
현대불교의 첫 인상은 읽을거리가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것이었다. 종단소식은 물론 르스님 법문에서부터 학술, 교양, 문화, 신행수기에 이르는 폭넓은 내용은 불교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나의 의식을 한 차원 끌어올려준 법문이나 계승등은 꼼꼼히 메모해 두었다가 가끔 들춰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현대불교신문은 나를 일깨워주는 동반자이다.

그러나 뒤늦은 행사안내, 시론(時論)같은 비종교는 칼럼 무게와 생동감 있는 신문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본다. 끝으로 제호 옆의 불출광고는 여러가지 의견상 없앨 수는 없겠지만 디자인이나 색깔을 좀 더 젊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시각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타종교도 포용하는 자세

최재석 (부경대 대학원생)

현대불교신문은 내용면에서 읽을 거리가 많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길은 묻는 이에게'나 '생활 속의 불교' '르스님 수행한담' 등을 통한 진리의 말씀과 '나의 수행일기' '신행담' '생활정보' '직장지능'란을 통해 생활 속의 공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불교의 평화와 기독교의 성화를 비교하는 연재란은 타종교에 대한 포용력을 보여 주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기록적 성향이 강한 광고는 정법을 지향해야 하는 공리로서 가능한한 신지 않았으면 한다.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하겠습니다

불교조각원

현대불교 창간 5주년을 맞아 더욱 새로워지는 현대불교 신문을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장 이진형 외
직원 일동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807번지
전화: (042)483-8466

새암산업

현대불교 창간 5주년축하드리며, 새암산업은 불교용품의 대중화와 고급화에 힘쓰겠습니다.

담당 이정철

매각대상·진주·임주
들기루를 이용한 다양한 주문제작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74-19 동신빌딩 2층
전화: (02)338-0947, 323-9038-9
FAX: (02)333-1669
E-mail: saaeam@kotis.net

선종사

불법 흥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원 일동

불교용품 제작판매
각종불사 상량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53번지
전화: (02) 738-8660~1
FAX: (02)738-8662

범우당

현대불교 창간5주년을 축하드리며 불교도서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이제우 외

직원 일동

▶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전화: (02) 994-4437-8
FAX: (02) 994-4438

한일휴텍

큰 스님, 자리가 불편해요...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인 설계

참선, 명상, 단전호흡 수련방식

▶ 영당이 모양의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합니다.
▶ 영당이 뒤쪽과 꼬리뼈와 좌우를 잇는 방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 크기가 작아 휴대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방식에 사용하던 찰흙 매트보다 편안한 효과를 줍니다.
▶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좌우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제품size:
가로 43cm 세로 29cm
높이 7cm
소비자 가격: 27000원
(택배비 포함)

*다량 구입시 할인가 적용

한일휴텍 Hanoi Human Technology
구입문의 (02)433-7447